

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최 연 실(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고,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도 보다 다양화되었다. 통계청(2008)의 『200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인의 국적을 지닌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38,491건이다. 이를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 4,710건에 비교해보면 8.2배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 전체 혼인 건수가 342,592건임을 감안하면 이는 2007년에 한국에서 결혼한 열 쌍 가운데 한 쌍은 국제결혼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의 전체혼인건수가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출범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빈도에 있어서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아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국적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외국인 남자배우자의 국적이 일본과 미국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보다 다양해지게 되었다(김두섭, 2006).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의 발생 배경과 전개 양상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되어왔다. 근대 이후를 거슬러 볼 때, 일제시대의 식민지 지배, 징병, 징용, 한국동란 이후의 미군 주둔 경험 등 어두운 측면에서 시작하는 한국 국제결혼의 역사는 1960년대 이후에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광부나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은 한국인의 국제결혼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나 해외 유학생의 증가, 혹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 증가로 국제결혼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의 내용과 성격은 1990년대 이후 증가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노동력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된다. 특히 이 시기 이후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이전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

적으로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3세계에서 건너온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한국 여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가족을 임시 방문하는 권리만을 지닌 실정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본인도 외국인 노동자 남편의 주변적 지위를 수여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전수현, 2002).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교포인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의 한국 노동시장 유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국제결혼의 발생은 더욱 빈발하는 추세이며, 일본과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유지되어온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연예산업의 진출로 인한 한류열풍은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 사이에서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이들 지역과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나 활동도 주목할 만한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이 국가들 사이에서 미래 세대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양극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지적이 있어왔다(전수현, 2002).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이 이중적이어서 서구문명국가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3세계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행태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인종주의(racism) 같은 문화심리적인 경향을 깔고 있으며,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이러한 양극화된 방향이 점차 해소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은 사적이면서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결합인 결혼이라는 형식 안에 일종의 문화접변 현상이 내용으로 스며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 혼합이나 침투로 인하여 포용이나 이해가 바탕이 될 때는 가족관계 안에서 풍부한 내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나 언어, 소통의 차이에 의한 오해나 소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묘하고도 심각한 마찰이나 갈등을 유발해 가정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작용하는 정치적·경제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영향력과 결혼 내부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내적 역동성의 문제는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198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란 주로 미군 아내와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이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박종삼, 1982; 송성자, 1974; Kim, 1972, 1977; Lee, 1981; Yuh, 2002).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혼인이주를 떠남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 이주여성

1) 2003년 리서치 앤 리서치는 조사대상 600명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허락하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45%는 ‘본인이 원한다면 허락’, 54%는 ‘본인이 원해도 불허’라고 대답했다. 미혼남녀에게도 유사한 질문을 한 결과, 60%는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40%는 ‘사랑해도 결혼은 곤란하다’고 해 부모보다는 국제결혼에 적극적이었다. 자료출처: 2003년 9월 20일 조선일보.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 특정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설동훈 외, 2005; 여성가족부, 2005, 2006; 여성개발원, 2005; 이순형 외, 2006)나 이주여성지원단체(석원정, 2004; 이금연, 2003; 최근정, 2003)는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 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훙, 2003)를 보고하고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외국인 주부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윤애, 2004; 정기선 외, 2007; 정일선, 2006; 충북도청, 2004; 한영현, 2006)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개월 이상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는 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풍부한 사례를 전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에 대한 연구(민가영, 2004; 성지혜, 1996; 홍기혜, 2000)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특히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김정선, 2004; 윤형숙, 2004a, 2004b; 조성원, 2000; 전수현, 2002), 중산층 한족과 한국인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중 국제결혼을 다룬 최연실 외(2007)의 연구는 이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사회에서 국가간 노동이주에 관련된 연구(이혜경, 2004,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부부 연구(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a, 2006b; 김이선 외, 2006; 김현미, 2007; 양순미·정현숙, 2006; 윤형숙, 2005; 이수자, 2004; 최연실, 2007)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현상이 가시화된 이후인 2000년대, 특히 중반 이후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제결혼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설동훈 외, 2005; 여성가족부, 2005, 2006)도 있으나, 대부분이 소수의 국제결혼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제결혼에 관한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인구학적 연구는 소수(김두섭, 2006; 최연실, 2005)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의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국제결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상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결혼의 발생원인을 고찰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양상과 추이, 국제결혼의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II.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발생 원인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 발생하는 배경을 탐색해 보면, 정치적·역사적 차원에서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역사,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이동이나 유입,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예, 관광, 유학 등의 상호교류, 그 밖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보기술산업 등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우편이나 인

터넷을 통한 중매기관의 활성화 등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의 발생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두섭(2006)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인력(nuptiality)의 변화로 이해하고, 이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즉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구분한다. 한편, 설동훈(2006)은 국제결혼 이주의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세계체제적 조건, 송출국의 상황,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국제결혼 중개자 등을 거론한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세계체제적 조건, 송출국의 상황,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발생 원인을 제시한다.

1. 세계체제적 조건

최근에 이르러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 정보와 인적 자원의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변화, 인터넷과 범국가적 대중매체의 공유, 여성지위의 향상은 결혼에 관한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두섭, 2006).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력 이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국제결혼의 원인 중 단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이동의 여성화 현상이란 국가간 이주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과거 국가간 노동이동에 있어서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는 자이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tied-mover)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이 주도적인 이동의 주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이다(이혜경, 2004).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원인은 우선 노동유입국의 측면에서는 주로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간 노동이주와 관련된 혼인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Truong(1995), Piper(1997), 그리고 Yu(2001)이다. 우선 Truong(1995)과 Yu(2001)를 살펴보면, 그들은 우편주문신부를 경제적 이주자로 파악하며, 특히 이들의 “재생산노동자(reproductive workers)”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국(노동유입국)의 가사서비스 부문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3세계(노동송출국) 여성을 이주노동자로 또는 혼인이주자로 불러들이며, 이는 재생산(노동)에 있어서의 국제분업을 야기한다고 보았다(Truong, 1995:142-143).

Piper와 Mina(2003)는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를 우편주문 신부나 부인(wife) 아니면 가정부나 유흥업 종사자 등의 노동자(worker)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들을 부인과 노동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그 여성들이 노동자로 이주하였다가 현지의 남성과 혼인해 부인이 되기도 하며, 우편주문 신부로 혼인이주 하였다가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설동훈(2006)은 국제결혼 이주의 메커니즘을 이루는 세계체제적 조건과 관련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이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현상으로 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저개발국의 젊은이들이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저개발국으로부터 노동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연결망을 이용하여 이들의 고향이나 출신국가로부터 혼인이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이주자와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김두섭, 2006).

2. 송출국의 상황

노동송출국의 측면에서는 최근 국가간 노동이주가 과거 ‘이민’으로 대표되던 노동송출국에서 노동유입국으로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최근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서 일시적 이동과 순환이동이 급증하여, 국가간 이주가 ‘상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노동송출국의 가족들은 가구원 중 노동송출국으로의 입국과 취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려는 가족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이주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농촌 및 도시 하류층 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게 된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는 방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설동훈, 2006).

3.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

혼인력 변화와 국제결혼 증가의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들을 제시한 김두섭(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혼인적령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성/연령 인구구성 변화의 원인으로 출산력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가동을 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가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출산력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저하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 연도별 출생코호트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자신보다 연하의 여자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력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저하는 해당 출생코호트가 혼인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출생성비의 상승은 혼인적령인구의 남녀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태아의 성을 판별하는 의료기술이 보급되면서 남아의 선별출산으로 인해 출생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높은 수준의 출생성비와 함께 출생아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남자의 혼인연령이 여자보다 높게 유지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혼인적령기에 도달하는 남자인구

의 규모는 여자인구보다 심각하게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배우자선택과정에서 과부족현상이 나타나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배우자선택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독신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남녀의 어느 한 쪽에 선택적인 인구이동 역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 선택적인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지역에 따라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혼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농촌지역에서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층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젊은 여자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혼인적령기 남녀인구의 균형이 깨어진 데 기인하는 것이다.

4. 가치관의 변화

성/연령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김두섭(2006)이 제시한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온 또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 추세인데, 이에 따라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른 혼인시장의 압박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양성평등 관념이 널리 확산되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특히 높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지닌 여성들일수록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혼인시장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친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현저하게 약화되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혼인 시기, 배우자의 조건, 혼인 절차 등에 관련해서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아울러 세계화는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 방문 및 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해 외국과의 교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외국인과의 접촉기회를 많아지게 하고, 이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인력교류가 확대되고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여성지위의 향상, 여권의 확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포함하여 혼인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특히 한국여성들의 국제결혼을 설명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나타난 양상과 추이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인 한국으로 혼인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혼인이주로서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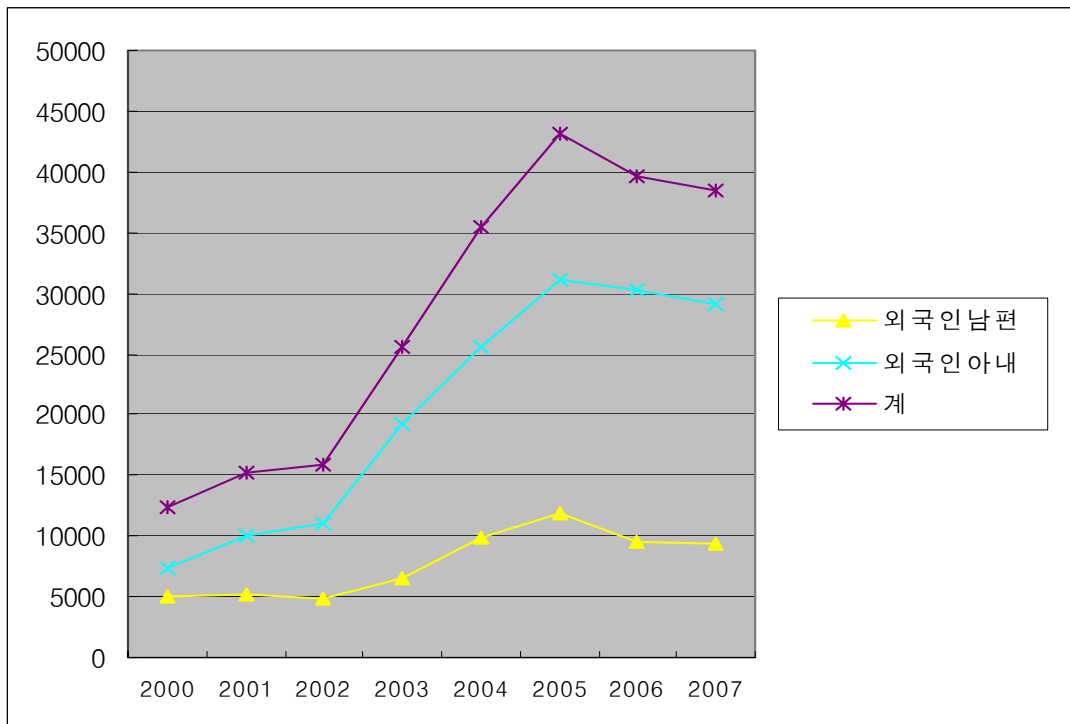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그림 1> 참조). 이러한 감소 추세가 뚜렷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지만, 현재로서는 국제결혼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그 증가의 폭이 완만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 추이(2000년-2007년) (건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외국인 남편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외국인 아내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계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그림 1>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성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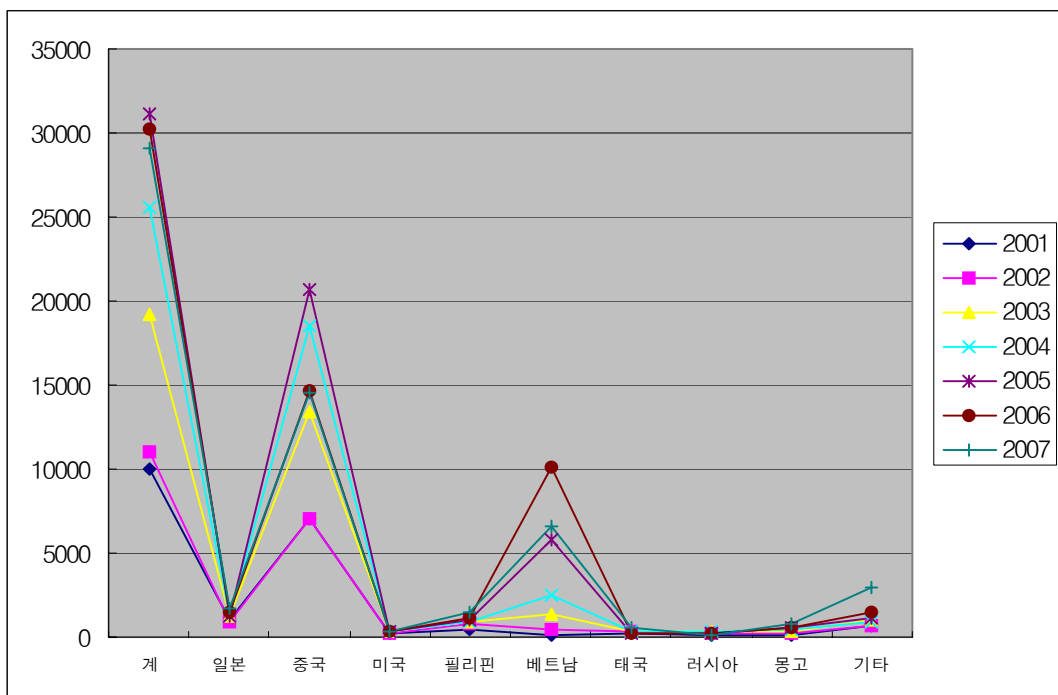
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그림 2>는 2001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여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남성은 중국, 베트남 및 일본 여성과 주로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급격하게 결혼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다(통계청, 2007).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1996년 중국교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중국교포와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교포 여성과의 혼인이 감소한 이유는 한·중간의 결혼절차 상의 까다로움(1996-2003), IMF 경제위기(97-98년) 및 국적법 개정(1998)의 여파 때문이었다(이혜경, 2004: 105-106). 하지만 <그림 2>를 통해보면, 한국인 남성의 중국여성과의 결혼은 다시 증가하여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중국동포) 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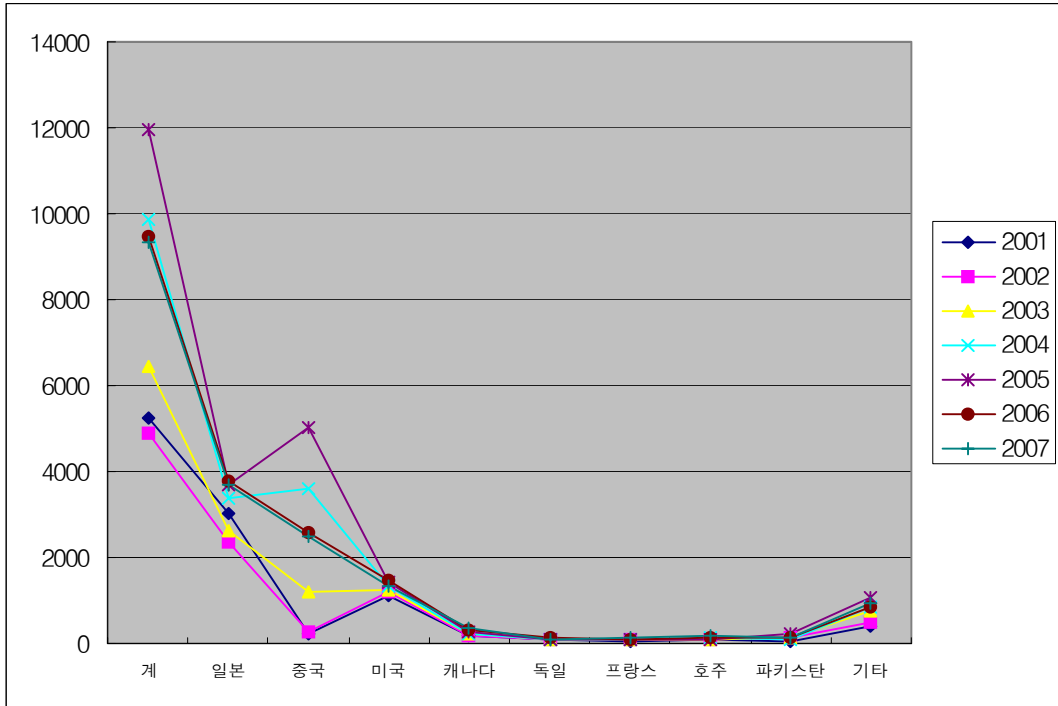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중국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되지만,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건수는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된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키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은 친지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 이주의 기회 확대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김두섭, 2006).

외국인 부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들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동남아시아국가와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2>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추이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그림 3> 한국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 추이

러시아, 몽고 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결혼중개업체의 대단위 알선에 기인한 바 크다(김두섭, 2006; 이해경, 2004).

2.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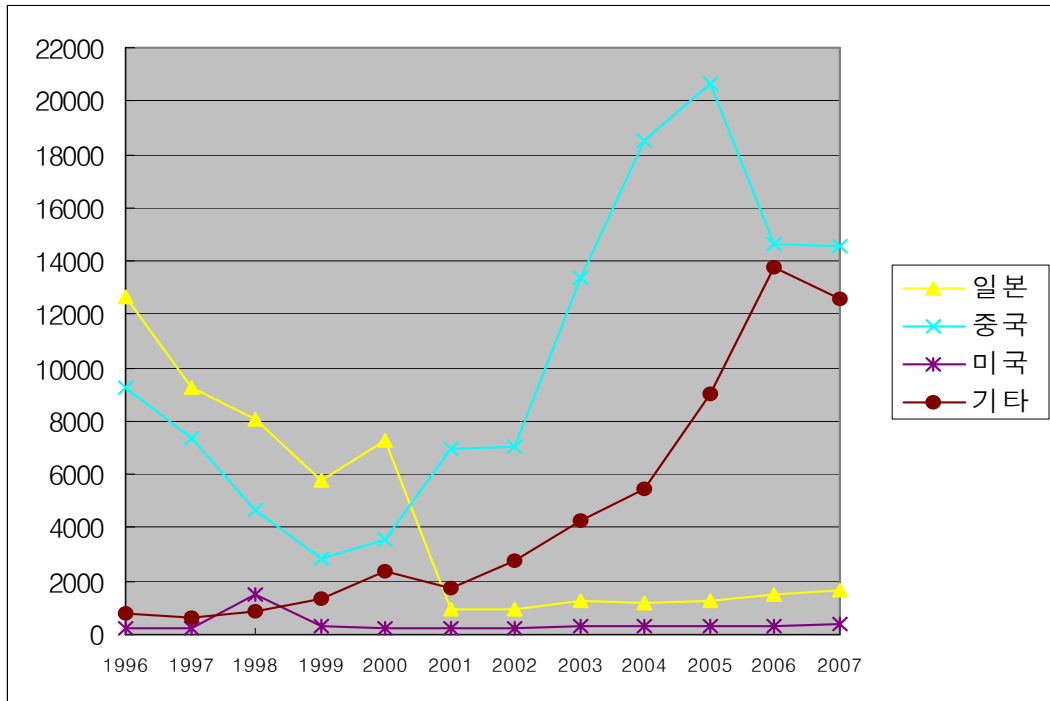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에 비하여 그 건수가 확연히 적고, 외국인 남성의 국적 분포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통계청, 2007)(<그림 3> 참조).

<그림 3>을 통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에서의 전체적인 국적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인과의 결혼이 점차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가 추세로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성하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남성과의 결혼도 언급이 되지만(이해경, 2004: 109),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미미한 형편이다. 한국 여성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남성과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수치(1996년-2007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일 본	12,647	9,266	8,054	5,775	7,304	9,76
중 국	9,271	7,362	4,688	2,883	3,586	7,001
미 국	228	213	1,514	280	235	265
기 타	778	616	848	1,364	2,352	1,764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본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중 국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미 국	267	323	344	285	334	377
기 타	2,750	4,276	5,499	9,005	13,782	12,572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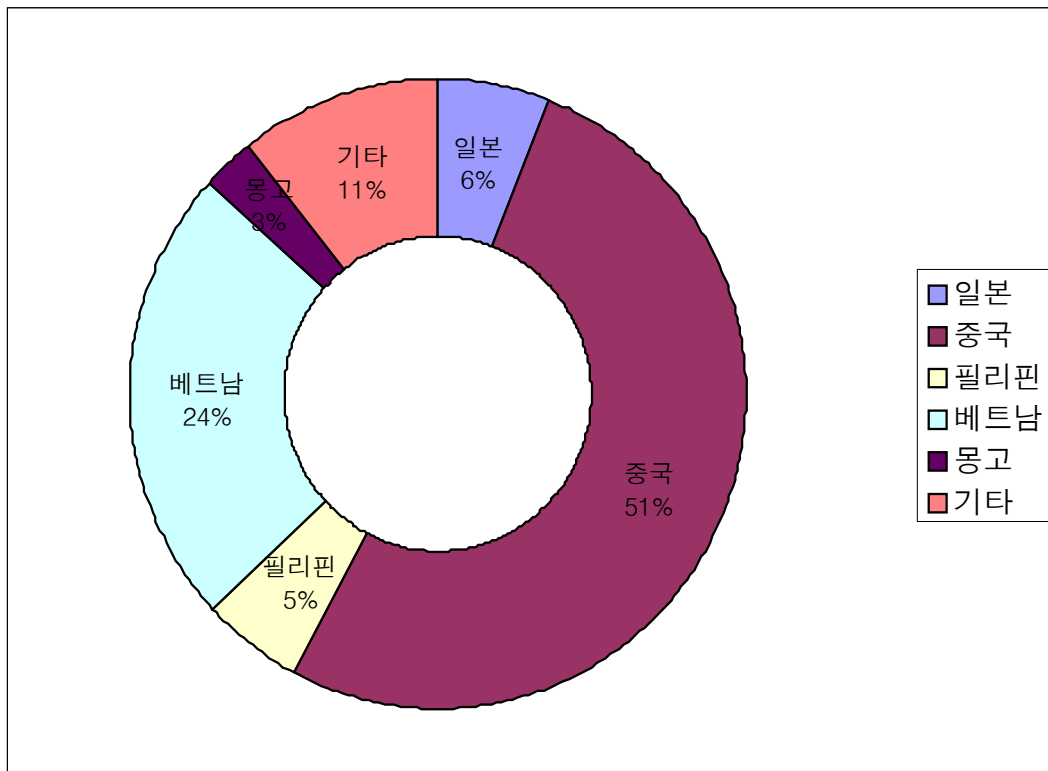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그림 4>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추이

IV.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국제결혼의 대상국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대상국가도 변화하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4>, <표 2>를 보면 1996년에는 일본여성이 한국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였는데 비하여, 2007년에는 한국남성과 중국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1%),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5> 2007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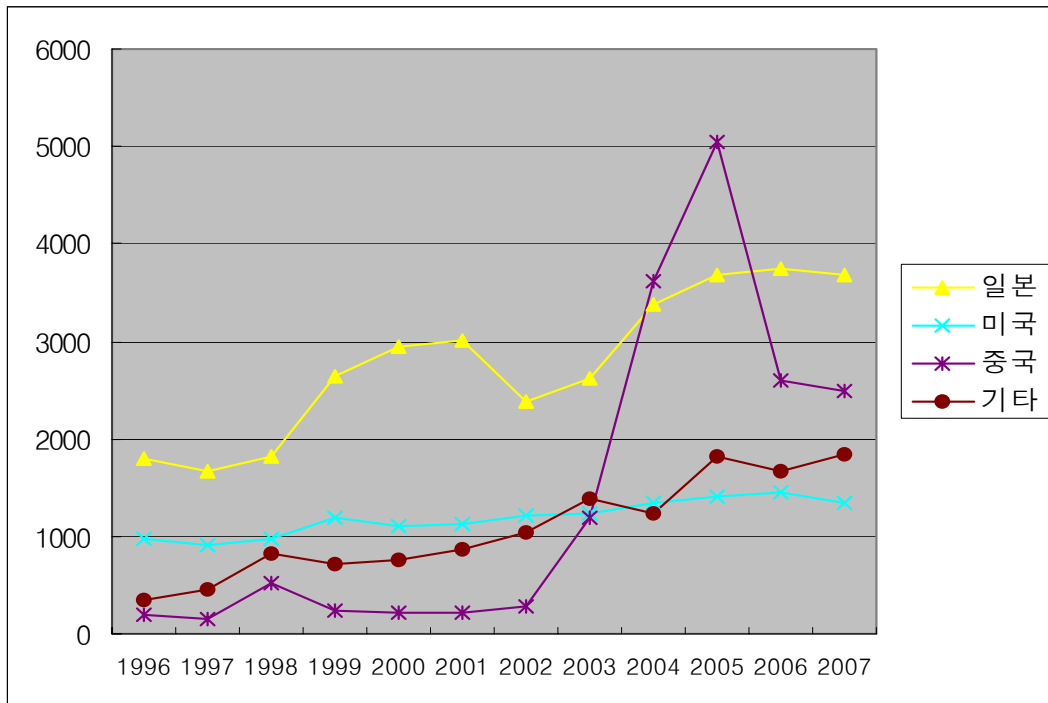
결혼(24%)으로서, 이는 한국인 남성의 일본 여성과의 결혼(6%),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5%)을 능가한다(<표 2>, <그림 5> 참조).

1996년 중국동포 여성의 ‘위장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1996년 9월부터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혼인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국적법을 개정하여 1998년 6월 14일부터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국적법 중 국제결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으로, 그간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2년이 지난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다. 1998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법 개정의 이면에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감소추세는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투영된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거의 2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1999년 8월부터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이러한 결혼알선기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700여개의 국제결혼 중매기관이 생겼다고 한다(한겨레 21, 2003:50).

<표 3>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수치(1996년-2007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일 본	1,789	1,670	1,818	2,649	2,941	3,011
미 국	965	902	981	1,190	1,095	1,132
중 국	191	151	514	234	218	222
기 타	354	459	821	722	761	86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본	2,377	2,613	3,378	3,672	3,756	3,684
미 국	1,210	1,237	1,348	1,413	1,455	1,344
중 국	272	1,199	3,621	5,042	2,597	2,489
기 타	1,037	1,395	1,506	1,814	1,674	1,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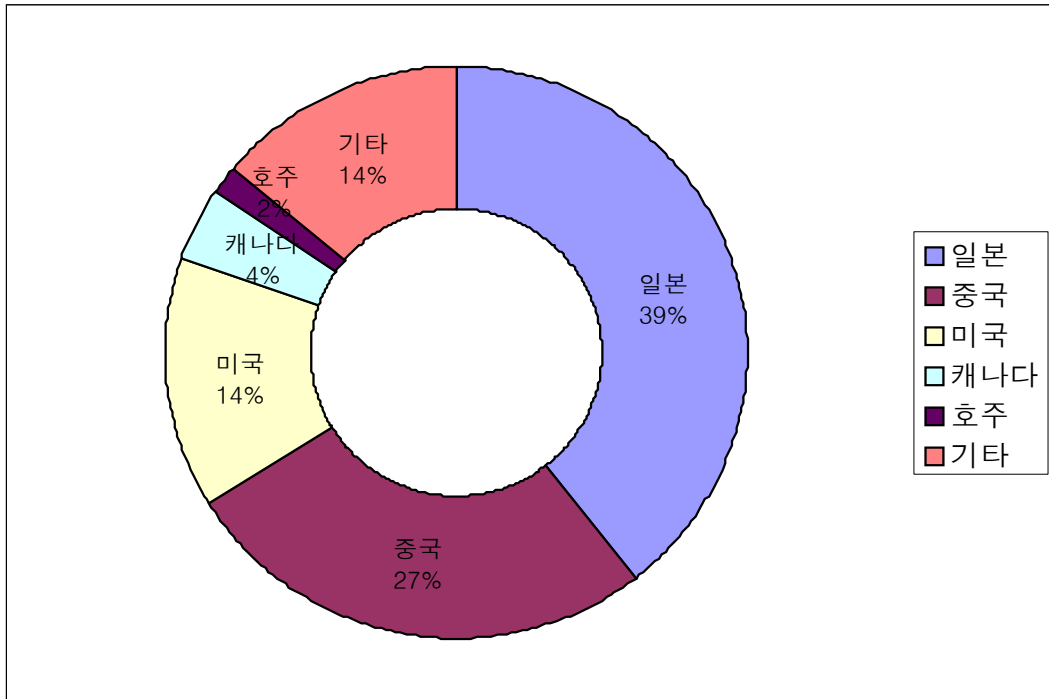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그림 6>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국적별 추이

다음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가를 살펴본다. <그림 6>, <그림 7>, <표 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별 규모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6>, <표 3>에 의하면, 1996년에는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 미국인 남성 순으로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일본인 남성, 중국인 남성 순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그림 7>을 보면, 2007년 국제결혼 한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39%), 중국(27%), 미국(14%), 캐나다(4%) 순이었으며, 이들 네 국가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03년까지 일본과 미국이 가장 많았으나, 미국인과의 결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본인과의 결혼은 1997년 감소하다가 199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서 이들은 특히 신용불량자의 국내 탈출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그림 7>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국적 비교

방법의 하나로 일본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였다고 한다(문화일보, 2004/03/11, 27면)²⁾.

주목할 현상은 한국 여성과 중국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 2004년에는 3,621건으로 2003년보다 202%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03년까지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이 가장 많았는데, 2004년부터 양상이 바뀌어 ‘한국 여성·중국 남성’쌍이 수위로 올라선 것이다. ‘한국 여성·일본 남성’의 결혼은 2006년부터 다시 늘어 2007년 현재는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남편의 국적 분포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부인의 국적 분포와 비교해볼 때,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7> 참조).

2. 국제결혼에서의 재혼 비중³⁾

<표 4>와 <표 5>는 한국인의 국제결혼에서의 재혼비율을 보여준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에 한국 남성의 내국인 간 결혼에서는 16.5~18.9%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32.6~45.3%가 재혼자였다(<표 4>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혼 현상은 한국인 여성의 국제

- 2)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일본인 남성을 주로 소개하는 전문 중매기관도 생기고 있어서, 2004년 인터넷상의 국제결혼 알선기관 가운데 외국인 남성을 소개하는 기관이 12개소로 그 가운데 10개소가 일본인 남성을 소개하고 있었다(이혜경, 2004).
-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국제결혼자의 결혼지위는 알 수 있으나 인구통계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 지위는 파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표 4> 한국남성의 국제혼인 중 재혼비율(2001년-2007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결혼	16.5	17.2	18.4	18.2	18.9	16.7	16.6
국제결혼	32.6	33.2	41.0	45.3	43.2	35.4	36.6
미 국	28.0	29.8	30.7	33.4	26.3	22.8	23.6
일 본	13.0	14.6	16.3	12.0	12.0	11.6	12.4
중 국	38.6	40.8	48.3	52.5	52.5	47.1	46.6
필리핀	20.3	20.0	21.9	28.8	28.9	29.5	32.1
베트남	26.3	27.4	29.3	27.6	25.6	24.8	26.1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5> 한국여성의 국제혼인 중 재혼비율(2001년-2007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내결혼	16.5	17.2	18.4	20.4	21.1	18.0	18.0
국제결혼	37.5	34.2	41.5	51.9	54.5	42.5	40.7
미 국	22.3	20.2	23.1	22.5	20.5	18.1	20.5
일 본	52.2	52.6	49.5	49.0	47.2	43.5	42.6
중 국	22.4	38.6	68.8	77.0	79.2	68.7	64.0
파키스탄	37.5	45.2	53.9	50.5	59.4	64.5	57.5
기 타	18.5	17.2	28.2	40.3	22.5	16.5	17.2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결혼에서도 발견된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에 한국 여성의 내국인 간 결혼에서는 16.5~21.1%가 재혼이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성보다 그 비율이 높아 34.2~54.5%가 재혼자였다(<표 5> 참조).

이러한 현상은 부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001년과 2007년 사이에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38.6~52.5%가 재혼자로, 재혼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재혼자의 비율(11.6~16.3%)이 가장 낮았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이후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내국인과 이혼한 남성들은 그들의 재혼 상대로 중국(교포) 여성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최연실, 2005)(<표 4> 참조). 2001년과 2007년 사이 재혼하는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상대는 한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국(22.4~79.2%)이며, 그 외, 일본(42.6~52.6%)과 파키스탄(37.5~64.5%)도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의 재혼비율이 높은 국가들인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 여성의 일본 남성과의 국제결혼에서는 재혼비율이 점차 낮아져 가고 있는데 비하여, 파키스탄 남성과의 국제결혼에서의 재혼비율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점차 높아진 추세이다(<표 5> 참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국제결혼 부부의 초혼여부별 분포를 제시한 김두섭(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중국 이외 외국 여성과의 결혼에서는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저개발국 여성들과의 결혼에서는 부인은 초혼이고 한국인 남편은 재혼인 경우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같은 연구에서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은 재혼이 초혼보다 많았는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많았으나, 대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혼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중국과 일본 국적의 남자와의 결혼에서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높게 집계된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제결혼에서 부부 모두의 재혼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독 중국인과의 결혼에서 재혼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결혼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부 중국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3. 국제결혼 배우자의 연령 차이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녀 모두 대체로 혼인연령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상당 부분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30, 40대의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두섭, 2006).

<표 6>은 2006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 및 부부의 연령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0.3세이나 외국인 아내의 평균연령은 28.8세로 연령의 차이가 11.5세나 된다. 한국인 남편에 비해 외국인 부인의 연령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령의 격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부인의 평균연령은 35.6세이고 외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결혼하는 당시의 연령은 높지만, 남편-아내의 연령 격차는 4.5세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연령의 격차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연령 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베트남으로 연령의 차이가 17.7세나 된다.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과의 결혼에서도 연령 차이는 10세를 훨씬 넘는다. 대조적으로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의 차이가 작게 나타난다.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연령 차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서 가장 큰 연령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혼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일본 남성과 중국 남성의 평균연령이 각각 44.9세, 39.3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며, 이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들의 평균연령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역시 대조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미국 남성과 캐나다 남성은 평균연령도 낮은 편이며, 남편·아내의 연령 차이도 작은 편이다.

4.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

<표 7>은 2006년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교육수준은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인데 비하여, 미국 여

<표 6>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 및 부부의 연령 차이(2006년)

외국인 아내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차이	N	외국인 남편 국적	남편 평균연령	아내 평균연령	남편-아내 연령차이	N
합 계	40.3	28.8	11.5	30,542	합 계	40.1	35.6	4.5	9,482
중 국	42.5	34.2	8.2	14,608	중 국	39.3	38.6	0.6	2,597
베트남	39.2	21.4	17.7	10,131	일 본	44.9	36.6	8.3	3,756
일 본	32.5	31.0	1.6	1,484	미 국	33.7	30.7	3.0	1,455
필리핀	39.0	24.6	14.4	1,157	캐나다	31.5	29.1	2.4	308
몽 고	39.1	27.6	11.5	594	기 타	32.7	30.4	2.3	1,366
미 국	34.5	32.3	2.2	334					
기 타	37.2	26.0	11.2	2,234					

<표 7>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2006년)

외국인 아내 국적	외국인 아내의 교육수준					N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					N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합 계	34.5	46.0	13.1	6.3	100.0	29,775	2.1	56.9	18.3	3.8	100.0	29,775
중 국	37.3	46.8	9.2	6.6	100.0	14,608	23.1	57.0	15.9	3.9	100.0	14,608
베트남	44.0	48.9	2.4	4.7	100.0	10,131	22.2	64.2	11.6	2.0	100.0	10,131
일 본	3.0	28.5	50.3	18.2	100.0	1,484	4.3	27.0	51.4	4.7	100.0	1,484
필리핀	6.1	50.5	38.8	4.7	100.0	1,157	19.2	53.4	24.3	3.1	100.0	1,157
몽 고	6.0	38.6	50.0	5.4	100.0	594	16.9	57.9	22.1	3.0	100.0	594
미 국	1.8	13.8	79.3	5.1	100.0	334	16.2	14.7	79.3	4.5	100.0	334
기 타	15.9	42.6	36.4	5.1	100.0	2,234	14.7	47.4	35.0	2.9	100.0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					N	한국 아내의 교육수준					N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중졸 이하	고 졸	대학 이상	미 상	합 계	
합 계	12.4	42.2	36.8	8.6	100.0	8,651	13.8	45.5	32.5	8.2	100.0	8,651
중 국	33.2	52.1	10.1	4.6	100.0	2,597	31.8	53.6	9.7	4.8	100.0	2,597
일 본	5.1	49.9	30.5	14.4	100.0	3,756	8.6	54.8	23.0	13.6	100.0	3,756
미 국	0.2	21.2	74.6	3.8	100.0	1,455	2.3	23.5	70.4	3.8	100.0	1,455
캐나다	0.0	6.8	90.6	2.6	100.0	308	0.3	11.7	85.4	2.6	100.0	308
기 타	1.7	17.9	77.0	3.4	100.0	1,366	2.5	19.3	76.1	2.2	100.0	1,366

성은 80% 정도가 대졸 이상이고, 일본, 몽고 여성 등도 대학 이상이 많으며, 필리핀 여성은 고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 이상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은 한국인 남성들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일본, 미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학 이상이 가장 많은데,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마찬가지로 80% 정도가 대졸 이상이다.

한편, 김두섭(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부부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는 다양한 분석작업을 시도한 결과,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교육수준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는데, 37.9%는 한국남편의 교육 수준이 베트남 아내보다 높았고, 47.8%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같았으며, 14.3%는 오히려 베트남 아내의 교육수준이 한국인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여성들

의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이 잘못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국 남성은 고졸, 중졸 이하의 순이며, 일본 남성은 고졸, 대학 이상의 순이다. 하지만 이외는 대조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한 미국 남성과 캐나다 남성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그들의 외국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5. 국제결혼 남편의 직업 분포

<표 8>은 2006년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의 직업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농업종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상대는 베트남 여성들이지만, 이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중에도 기능/기술이나 전문/관리/사무, 혹은 서비스/판매 종사자들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도 전문/관리/사무 종사자나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종사자가 많으며, 이는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상당한 비율이 전문/관리/사무에 종사한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 국적에 따른 종사 직업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중국 남성은 기타 직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며, 농어업/단순노무나 전문/관리/사무에 비슷한 비율로 종사한다. 일본인 남편은 전문/관리/사무에 절반 가까이 종사하며, 캐나다인 남편은 전문/관리/사무와 기능/기술, 미국인 남편은 기타와 전문/관리/사무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

<표 8>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남편의 직업 분포(2006년)

외국인 아내 국적	한국 남편의 직업					합 계	N
	전문/관리/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단순노무	기 타		
합 계	26.6	23.7	22.4	18.9	8.4	100.0	30,542
중 국	27.7	26.6	22.8	13.8	9.2	100.0	14,608
베트남	22.2	20.9	23.0	29.6	4.3	100.0	10,131
일 본	39.6	17.0	12.9	3.0	27.5	100.0	1,484
필리핀	26.0	22.1	22.7	20.7	8.5	100.0	1,157
몽 고	25.9	22.9	26.6	18.2	6.4	100.0	594
미 국	38.3	19.8	19.2	2.1	20.7	100.0	334
기 타	32.0	22.4	22.4	14.6	8.5	100.0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외국인 남편의 직업					합 계	N
	전문/관리/사무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농어업/단순노무	기 타		
합 계	35.3	16.6	16.5	6.8	24.8	100.0	9,482
중 국	18.6	16.2	13.9	18.8	32.5	100.0	2,597
일 본	48.0	19.4	12.6	2.5	17.5	100.0	3,756
미 국	29.1	12.0	22.8	0.3	35.7	100.0	1,455
캐나다	42.2	10.4	34.1	0.0	13.3	100.0	308
기 타	40.4	13.8	29.7	0.7	15.3	100.0	1,366

<표 9>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결혼 후의 거주지역 분포(2006년)

외국인 아내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 울	기타 ¹⁾ 수도권	기타 ²⁾ 광역시	기타 국내 ³⁾	국 외	합 계	
합 계	20.2	26.7	14.6	35.3	3.1	100.0	30,208
중 국	28.8	33.5	12.8	24.4	0.5	100.0	14,608
베트남	8.7	18.3	19.5	53.4	0.1	100.0	10,131
일 본	18.1	13.9	6.6	15.2	46.2	100.0	1,484
필리핀	13.7	23.6	13.3	44.7	4.7	100.0	1,157
몽 고	16.8	31.0	10.9	41.2	0.0	100.0	594
미 국	36.8	25.1	7.2	10.2	20.7	100.0	334
기 타	18.1	31.8	11.3	36.1	2.7	100.0	2,234

외국인 남편 국적	결혼 후의 거주지역						N
	서 울	기타 ¹⁾ 수도권	기타 ²⁾ 광역시	기타 국내 ³⁾	국 외	합 계	
합 계	31.7	23.0	10.7	11.8	22.9	100.0	9,482
중 국	45.5	34.4	8.6	10.7	0.8	100.0	2,597
일 본	20.6	13.4	11.4	12.0	42.6	100.0	3,756
미 국	33.2	25.8	10.2	11.3	19.5	100.0	1,455
캐나다	38.3	27.6	15.3	13.6	5.2	100.0	308
기 타	34.8	24.1	14.2	15.1	11.8	100.0	1,366

주: 1) 기타 수도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포함.
 2) 기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광역시 포함.
 3) 기타 국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 기타 지역.

6.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역 분포

<표 9>는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결혼 후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부는 61%,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는 65.4%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진행되던 초기와 달리 현재에는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 부인과 한국남편 부부는 주로 서울, 중국 출신의 부인과 한국 남편 부부는 기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한다.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부인과 한국 남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들은 서울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나타는 것은 일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그리고 미국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모두 국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7.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해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은 1,611건으로 전년도 583건 보다 1,028건이 증가(증가율 176.3%)하여 상당히 증가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는 대체로 이혼

<표 10>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2000년-2007년)

(단위 : 건, %)

외국인 부인 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계	320	462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가	-	142	-61	182	1,028	833	1,566	1,784	100.0
증가율	-	44.4	-13.2	45.4	176.3	51.7	64.1	44.5	
1 중국	96	170	181	275	841	1,431	2,551	3,665	63.3
2 베트남	-	-	7	28	147	289	610	895	15.4
3 일본	180	140	97	121	145	168	202	219	3.8
4 필리핀	-	-	29	44	112	142	171	220	3.8
5 몽골	-	-	10	6	83	116	132	173	3.0
6 미국	-	45	21	27	74	62	73	73	1.3
7 우즈베키스탄	-	-	3	16	67				
8 태국	-	-	19	12	42	37	33	59	1.0
9 러시아	-	-	6	5	39	52	43	65	1.1
10 호주	-	-	1	1	8				
11 대만	-	-	1	2	6				
12 캐나다	-	-	4	3	4				
13 기타*	16	107	22	43	43	147	195	425	7.3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21개국(한국 남자 33개국 외국 여자와 이혼).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표 11>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연령별 이혼

(단위: 건)

국적 \ 연령	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미국	태국	러시아	기타*
계	5,794	895	895	219	220	173	73	59	65	425
15~19	340	11	247	0	26	10	0	1	45	45
20~24	1,140	386	450	12	90	71	1	6	114	114
25~29	1,036	618	121	38	57	52	5	18	95	95
30~34	781	516	51	52	24	29	12	15	65	65
35~39	865	717	19	44	13	6	11	9	42	42
40~44	747	648	5	27	8	4	16	6	31	31
45~49	489	441	2	16	1	1	14	3	11	11
50~54	258	222	0	11	1	0	9	1	14	14
55세 이상	138	106	0	19	0	0	5	0	8	8

*호주, 대만, 캐나다 등 24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접근일: 2008/05/11).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부인과의 이혼이 3,665건으로 63.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부인과의 이혼으로 895건(15.4%)을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연령을 보면, 20대 초반(20-24세) 연령층(1,140건)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1,036건)에서 이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2007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는 모두 430

<표 12> 외국인 처의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 유무 (단위: 건)

자녀	국 적									
	계	중 국	베트남	일 본	필리핀	몽 골	미 국	태 국	러시아	기 타*
계	5,794	3,665	895	219	220	173	73	59	65	425
자녀있음	430	183	59	60	20	11	24	8	15	50
1명	303	116	48	44	14	8	16	6	13	38
2명	118	63	9	13	6	3	8	2	2	12
3명 이상	9	4	2	3	0	0	0	0	0	0
자녀 없음	5,364	3,482	836	159	200	162	50	51	54	375

*호주, 대만, 캐나다 등 24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표 13>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2000년-2007년) (단위 : 건, %)

외국인 남편국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계		1,369	1,407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가	-	38	58	116	208	45	436	764	100.0
	증가율	-	2.8	4.1	7.9	13.2	2.5	23.8	33.7	
1	일 본	1,114	1,097	1,160	1,218	1,351	1,343	1,525	1,650	54.4
2	미 국	199	195	180	226	264	219	238	259	8.5
3	중 국	31	46	51	36	45	124	319	649	1.1
4	독 일	5	8	10	9	17	16	7	10	0.3
5	파키스탄	-	-	3	9	16	25	33	35	1.2
6	호 주	-	-	5	8	13	7	10	10	0.3
7	캐나다	-	-	7	20	11	21	30	24	0.8
8	대 만	-	-	7	4	11				
9	방글라데시	-	-	6	5	9				
10	영 국	-	-	4	4	6				
11	이 란	-	-	1	2	3				
12	프랑스	-	-	5	4	2	5	11	3	0.1
13	태 국	-	-	1	4	2				
14	기 타*	20	61	25	32	39	74	97	397	13.1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1개국(한국 여자 34개국 외국 남자와 이혼).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부인 183건, 일본인 부인, 60건, 베트남인 부인 59건 등의 순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07년에는 3,034건으로 전년도인 2006년 2,270건보다 76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구성비를 보면 일본이 1,650건으로 54.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미국이 259건으로 8.5%이다. 한국인 남편의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 양상과는 달리, 한국인 부인의 경우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국적별 구성순서인 일본, 중국, 미국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표 13> 참조).

2007년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연령을 보면, 55세 이상이 700건, 45~49세 493건, 40~44세 477건으로 나타나 35세 이후,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 14>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연령별 이혼 (단위: 건)

국적 연령	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파키스탄	호주	캐나다	기타*
계	3,034	1,650	259	649	10	35	7	24	397
15~19	0	0	0	0	0	0	0	0	0
20~24	45	941	17	9	1	9	0	0	7
25~29	144		33	25	1	25	2	6	29
30~34	319	95	43	83	2	83	1	9	70
35~39	471	158	48	131	3	131	0	3	117
40~44	477	182	39	144	1	1	2	3	105
45~49	493	283	35	133	0	1	1	2	38
50~54	385	272	12	85	0	0	0	1	15
55세이상	700	610	32	39	2	0	1	0	16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5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표 15>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과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단위: 건)

국적 자녀	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파키스탄	호주	캐나다	기타*
계	3,034	1,650	259	649	10	35	7	24	397
자녀 있음	351	127	34	58	1	4	2	6	117
1명	260	91	25	42	1	4	1	5	89
2명	84	34	7	14	0	0	1	1	27
3명이상	7	2	2	2	0	0	0	0	1
자녀 없음	2683	1,523	225	591	9	31	5	18	280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등 25개국.

자료: 통계청(2007). <http://www.kosis.kr>. (접근일: 2008/05/11).

는 주로 20대 초반과 후반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양상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현상이다(<표 14> 참조).

2007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편의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한 경우는 일본인 남편 127건, 중국인 남편 58건, 미국인 남편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5> 참조).

V. 결론 및 논의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상의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로 2000년대 이후 2007년까지 국내 국제결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증가

에 기여하는 정도로 작용을 해왔음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바뀌어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능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는 주로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보이며,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김두섭, 2006).

둘째, 한국인들이 국제결혼 하는 배우자의 대상 국가는 2000년대 이전보다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고 출신의 배우자와, 한국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출신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국가와의 여성들의 결혼을 증가시켜 왔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큰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을 증가시켜 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별과 상대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인식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상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국제결혼에 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더욱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예를 들어, 선진국 여성, 즉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선진국 남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 선진국 남성, 특히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상당수는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재혼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이 된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은 재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들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상대가 되는 외국인 부인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들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들도 재혼비율이 높는데, 이들의 상대로는 중국 남성이 가장 많고, 파키스탄 남성, 일본 남성 순이다. 국제결혼에서 재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국내 결혼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로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혼의 성립 배경에는 성별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주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의 경우, 중국 남성이나 파키스탄 남성과의 재혼과 일본 남성과의 재혼은 다소 다른 양상과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남성이나 파키스탄 남성 등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유입된 경우나 그 외의 인적 교류의 기회로 인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1998년 IMF 이후 국제결혼을 한 예처럼 한국 여성들의 경제적 곤궁 탈출이나 지위 상승 등을 의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재혼과 관련하여 특이하게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에서는 2000년 이후 부부 모두 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이유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합에서는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 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이고, 일본이나 미국 출신 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가 작다. 연령 차이가 많은 경우는 남편은 재혼이고 부인은 초혼인 경우에 기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국가간 발전 수준의 차이에 기초한 저개발국 여성의 상품화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김두섭, 2006). 한편,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에서는 외국 남성과의 연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나,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 여성의 일본 남성과의 결혼은 재혼 비율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에서 교육 수준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외국인 부인의 학력과 한국인 남편의 학력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학력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중국 부인, 베트남 부인, 필리핀 부인은 고졸의 학력이 가장 많으며 그들의 한국남편들도 고졸의 학력이 가장 많다. 하지만 몽고 출신의 부인은 그들의 한국인 남편보다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 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동남아국가나 저개발 국가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은 고졸이 가장 많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은 압도적으로 대졸이 많다.

여섯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농업종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상대는 베트남 여성들이지만, 이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중에도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 중국 여성, 필리핀 여성, 몽고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도 전문/관리/사무 종사자나 서비스/판매, 기능/기술 종사자가 많다.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상당한 비율이 전문/관리/사무에 종사한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 국적에 따른 종사 직업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일곱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진행되던 초기와 달리 현재에는 국제결혼이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 부부의 거주지역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 중국 출신의 부인과 한국인 남편 부부는 주로 서울 및 기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함으로써 국제결혼이 도시에 이미 과급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고 출신의 부인과 한국인 남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 부부는 서울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본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그리고 미국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나 여성 부부의 경우 모두 국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일본, 미국이나 국외에 거주하기 때문인데, 혼인신고가 국외에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고,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한국인의 상당한 비율이 일본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하는 동포일 것으로 추정된다(김두섭, 2006).

여덟째,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하는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절반을 넘고 다음이 베트남이며, 그 다음부터의 순위를 차지하는 일본 등은 비율이 크지 않다. 이혼한 남편의 국적은 일본이 절반을 넘는 비율로 가장 많으며, 이는 두 번째 순위인 미국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 물론 국제결혼에서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대상의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수치도 높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한국 여성이 다른 외국인 남편들보다 일본 남성과 이혼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실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인 국제결혼에서 이혼연령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의 이혼연령에 비해서 외국인 남편의 이혼연령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 남성들과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러한 한·일 국제결혼의 내부적인 측면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제결혼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인구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제결혼 내부의 역학 관계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인구센서스 상에 나타난 혼인이나 이혼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국제결혼 커플들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가시화되었지만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인구통계자료의 정비도 2000년대 이후부터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자료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 제공의 의미를 지닌다.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실시되는 현실이 반영하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하나의 결혼 양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는 세계화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 작용하면서 비단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 출생성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혼인 적령기 남녀인구의 불균형, 젊은 여성들의 이농과 도시이주 등으로 농촌 지역 남성들의 배우자 부족,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과 혼인이주자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력의 국제 이동과 국제교류 기회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정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국제결혼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쪽으로 그 방향을 다듬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해순(1998). 중·한 섭외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한·중 국제혼인 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제11회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광주여성발전센터 발행 발표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민정(2003).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초국가시대의 정체성: 새로운 경계 만들기. 제 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민정 외(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숙자·강유진(1998). 한·중 국제혼인실태와 그 가족복지: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 혼인 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중 국제혼인 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제11회 한국 가정복지정책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 김애령(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도청.
- 김오남(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_____ (2006b).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이선 외(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 여성개발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 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 구성.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현미(2007). 국가와 이주여성: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의 갈라지는 희망들. 지구지역시대의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문화일보(2004). 3월 11일자.
- 민가영(2004). 로컬 가부장제와 글로벌 자본의 충돌과 공모: 중국 조선족 공동체 해체 주범으로 재현 되는 중국 조선족 ‘여성 유실’을 중심으로.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종삼(1982).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승전 대학교 논문집**, 12, 99-136.
- 석원정(2004).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여성과 이주 현실.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분회 10주년 및 여성주간 기념 이주여성문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발표논문.

-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결혼이민자가족: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한국 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여성가족부(200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_____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여성개발원(2005).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
- 윤형숙(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 321-349).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_____ (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위험(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2003). 국가인권회 주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발표논문.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교육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2004). 국가간 노동이주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가족과 차이.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일선(2006). 길찾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 결혼

- 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발표논문.
- 조선일보(2003). 9월 20일자.
-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 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근정(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발표논문.
- 최연실(2005). 인구통계상에 나타난 한국 국제결혼의 분석: 아시아권을 중심으로(基于人口統計的韓國跨國婚姻:以亞洲圈爲主). 東北亞發展論壇. 한중사회과학학회 · 국제지역학회 · 동북아지식인연대 · 북아경제학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 _____ (2007).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연실 · 권용혁 · 김태성 · 우실하(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의’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251-299.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 이혼편).
- _____ (2003).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2008).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한겨레 21(2001). 2001년 5월 24일자.
- 한영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전라남도.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 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Kim, B. L. C. (1972).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5), 273-279.
- _____ (1977).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s shadows, *Amerasia Journal*, 4(1), 91-115.
- Lee, D. B.(1981).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A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 Piper, N.(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 Piper, N. & Mina, R.(ed.)(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Truong, T. D.(1995).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International Female Migration and Japan: Networking, Settlement and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eiji Gakuin University, Tokyo.
- Yu, K.(2001).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4(2), 199-210.
- Yuh, J. Y.(2002).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